

##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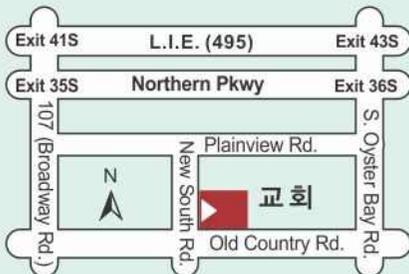
###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 교회 오시는 길



###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http://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중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91장, 405장		
기 도 Prayer	전용수집사	김근태장로	정수영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사(Isa)49:1-7		
찬 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 씬 Sermon	회복을 위해 쓰시는 중 김중훈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장봉용집사	2부 지재홍장로	3부 박재우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기쁨과 감사함으로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사(Isa)40:1-11, 27-31

제목: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서 정리]

1. 성경의 축소판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있습니다.
2.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듯듯이 이사야서도 크게 심판의 메시지(1-39장)와 회복의 메시지(40-66장) 둘로 나뉘었습니다.
3.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신약의 주된 메시지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53장의 수난 받는 메시아, 61장의 성령, 65-66장의 새 하늘과 새 땅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40장이 시작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고비를 넘고 리오프닝을 위해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맞추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된 말씀은 포로생활의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1.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라(40:1-8).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여호와와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2.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라(40:9-26)
  - 1)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목자같이 부드럽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40:9-11)
  - 2)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40:12-14).
  - 3) 일어났다 사라지는 열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라(40:15-17).
  - 4)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하나님을 보라(40:18-20).
  - 5) 역사상 나타난 영웅호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40:21-26)
3.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40:27-31)
  - 1)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원망과 의심과 불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27절).
  - 2)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28-30절).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피곤하다고 말하기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무능하다고 말하기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앙망이 사는 길입니다.
  - 3)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31절). 독수리는 잡새와 달리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오면 훈련된 날개로 각도를 맞춰 바람을 타고 폭풍 위로 올라갑니다. 신앙의 잡새가 되기보다 신앙의 독수리가 됩시다(신 32장과 헨델의 ‘메시아’)

[결론]

팬데믹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무신론적 교육으로 인한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운동, 교회학교와 차세대를 위한 지원 강화, 대안학교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는 우리의 과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십시오.

돌아 갈 곳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돌아 갈 곳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 볼 곳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 목장이야기

### 새벽이슬회

지난 7월에는 교회가 Reopening되면서 새벽이슬회 청년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친교를 위해 고기를 굽고,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만나지 못하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친교 하는 동안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색함 보다는 어제도 만났던 친구를 대하는 친밀함만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분명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서로 간에 더욱 더 가까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나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새벽이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되고, 고난이 반으로 줄어줄 것을 믿습니다.



## 주일 찬양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김민수집사(하늘목장)

코로나 초기에는 지나가는 독감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심해져 갔고, 급기야는 모든 사회활동이 멈추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 중 부활절이 다가왔다. 찬양대에서는 매년 칸타타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고민할 때 '비대면 찬양'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부활절에 배 마만큼 찬양대 전원이 함께 찬양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연습에 들어갔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2부 글로리아, 3부 할렐루야 합쳐 모두 90명의 찬양대원이 따로 부른 찬양을 하나로 편집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비디오편집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번 처음 하는 일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90명의 찬양대원 한분 한분이 동영상 보내왔다. 거기엔 팬데믹 동안 마스크를 쓰느라 화장할 일 없었던 분들이 가장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서툴지만 직접 녹화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찍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영상이었다. 그 정성에, 그 열심에,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20년 넘게 디자인 작업을 해왔다.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은 시간에 쫓겨 밤을 새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 찬양 편집은 달랐다. 밤을 새워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감사했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아이들도 찬양을 따라 불러가며 응원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총감독이 되셔서 함께 하신 은혜로운 작업이었고, 지금도 가끔 이 영상을 볼 때에 그 때의 감동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Covid-19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추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깨달았다. 찬양은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57:7

###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8월 11일

기 도 ..... 김순영권사  
말 씀 ..... 김종훈목사

###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씀 ..... 김종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8월 15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장봉용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지재홍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박재우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8월 18일 수요일기도	정영숙권사	예배부

## 교회 소식

###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담임목사 동정: 8/10-11 시찰회 참석(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보스턴)
3. 각 목장별은 목원들의 백신 접종 사항을 파악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들과 8/11(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실에서 교회의 방역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입니다.

4. 시무장로와 피택장로 기도회: 8월 12일(목) 오후 8:30분, 본당
5. 주차 안내: 항존직은 16번지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오현섭장로
  - 사랑의식탁: 오현섭장로, 김상진&김신애집사(큰딸 생일)

### 새교우

- 윤재호&주원미집사(6선교회, 믿음목장 Plainview) 인도: 김예환집사

### 행사예고

- 7/5-8/13	예일 여름학교(Yale Disciple Land Summer School)
- 7/12-8/13	예일 유년부 어린이를 위한 무료여름프로그램 (Yale Kids Afternoon Meeting)
- 8/15	장로고시(김두성, 전용수, 김동환)
- 8/15-19	중고등부 신앙수련회

### QT본문

요일	일(8)	월(9)	화(10)	수(11)	목(12)	금(13)	토(14)
본문	사(Isa) 59:1-21	사(Isa) 60:1-22	사(Isa) 61:1-11	사(Isa) 62:1-12	사(Isa) 63:1-14	사(Isa) 63:15-64:12	사(Isa) 65:1-16

## 목양 칼럼

2021. 32.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가 백신 개발로 좀 수그러지다가 했더니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백신 주사를 2차까지 맞은 사람은 안전하고, 설사 겠더라도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지나간다고 하지만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 조심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회가 모여 가이드라인을 의논했습니다.

1. 교회에 대면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는 이웃사랑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2.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기 증상이나 변이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되는 분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4. 일단 이번 주일 한 주는 베이글 친교나, 계획된 찬양위원회 BBQ 파티를 연기합니다. 한 주 후에 경과를 보면서 다시 당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5. 목장예배는 목장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이번 주가 지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각 목장별로 목원들의 백신 접종 사항을 파악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들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실에서 교회의 방역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입니다.